특별선교주일

설교 자료

연합감리교구호주일



본 예배 자료는 목회자 및 지도자들의 연합감리교구호주일 예배 준비를 돕기 위해, **성서일과표의 수태고지 본문(2026년 3월 25일)인, 이사야 7:10-14, 시편 40:5-10, 히브리서 10:4-10, 누가복음 1:26-38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꾸러미의 다른 자료들과 함께 각 교회 및 예배의 상황에 맞게 바꾸어 사용하세요.

서론:
파괴 속의 희망

자연재해이든 인도주의적 위기이든, 재난이 지나간 자리에서 우리는 종종 상상할 수 없는 파괴를 목격합니다. 집들이 떠내려가고, 가족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흩어지며, 공동체가 산산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의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연합감리교인들은 도움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것을 목격해 왔습니다. 그와 같은 희망의 등불 하나가 바로 연합감리교 구호위원회(UMCOR)입니다. 구호위원회는 우리 교단이 위기를 맞은 사람들을 위해 주님의 손과 발로 쓰임 받는 기관입니다. 구호위원회의 봉사자들과 파트너들은 혼란과 상실의 한가운데로 실제적 도움과 은혜로운 임재를 전달합니다. 2024년 노스캐롤라이나 산악 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헬렌과 같은 재난 이후에도, 구호위원회의 일꾼들은 피해 지역으로 들어가 여러 주, 여러 달 동안 그곳에 머물며 생존자들과 관계를 맺고, 기존의 구호 단체들이 제공하기 어려운 차원의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정부의 서비스가 과부하에 걸리거나 손이 미치지 못할 때, 교회는 안전망이 되었습니다. 애팔래치아 지역의 한 침수 피해 마을에서는 아홉 가정이 집을 잃고 캠핑 트레일러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구호위원회와 지역 교회 팀들은 창의성과 섬김의 마음으로 응답하여, 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견딜 단열 조치로 트레일러들을 짚단으로 둘러싸기도 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구호위원회 지도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역 공무원들은 사실상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고, **"교회에 손을 내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영하의 밤이 닥치기 전에 가정들의 안전한 거처를 위한 문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자비롭고 창의적인 행동들은 위기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할 때,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수태고지: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

오늘의 본문들은 바로 그 희망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을 들려줍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자는 위협 아래에 있는 백성에게 한 징조를 전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뜻으로, 그분은 우리의 두려움과 필요 가운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수 세기가 흐른 뒤,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이 예언이 아름답게 성취되는 모습을 봅니다. 억압적인 시대의 불확실한 상황 속에 살던 한 젊은 여성,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 세상을 바꿀 소식을 전합니다(눅 1:26-38). 마리아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그 인사가 당황스럽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의 메시지는 동일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와 함께 있고, 그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순간, 마리아는 믿음의 소망을 몸소 드러냅니다. 그녀는 혼란에서 신뢰로 옮겨가며, 마침내 이렇게 응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눅 1:38).

마리아의 "예(yes)"가 지닌 무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상처 입은 세상 속으로 임마누엘을 품고 들어오겠다고 동의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신실한 순종은 시편 40편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라는 고백의 핵심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꺼이 원하는 마음입니다(시 40:6-8; 히브리서 10:5-10도 이 점을 함께 말씀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던 마리아를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한 인간 조건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특별선교주일

설교 자료



연합감리교구호주일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히 10:7).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성취이며,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걸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수태고지 이야기는 기적적인 탄생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의 아픔과 희망 속에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개입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역자로 선택하신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마리아를 통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모두를 통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마리아의 "예"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시작하게 했고, 그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모범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요청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위기 한가운데로 희망을 들고 나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보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응답하기:
하나님의 손과 발로서의 구호위원회

오늘의 세상에서 필요는 너무나 거대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는 신음은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리아의 품에 안기게 하셨던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비를 실천할 기회를 **우리**의 팔에 맡기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그 성육신의 사역을 이어가도록 초대받았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실제적인 현존이 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구호위원회는 이 부르심의 살아 있는 증거입니다. 구호위원회를 통해 연합감리교회는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섬김의 초대에 "예"라고 응답하며, 경계를 넘어, 잊혔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다가갑니다.

허리케인 헬렌으로 큰 피해를 본 산악 지역의 공동체들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홍수로 집이 파괴되고, **"폭풍이 휩쓸고 간 지역들"**이 절망 가운데 남겨졌을 때, 구호위원회는 실제적인 희망을 가져가, 가정들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삶을 다시 세워 나가도록 도왔습니다. 봉사자들의 존재 자체가 그 가정들에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호위원회는 전 세계 수많은 위기 속에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계속 확장해 갑니다.

우리 시대의 또 다른 시급한 과제인 난민과 이주민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과 박해, 빈곤 때문에 수없이 많은 가정이 안전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종종 트라우마를 안고 지친 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로 낯선 땅의 국경에 도착합니다. 이 지점에서도 구호위원회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임재의 도구로 나서 왔습니다. 구호위원회는 교회와 세상 서비스(Church World Service), 그리고 구호위원회가 직접 시작한 사역인 이웃들을 위한 정의(Justice for Our Neighbors)와의 연계 사역을 통해, 이주민들에게 음식과 쉼터, 법률 안내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경 지역에 있는 여러 연합감리교회들은 미-멕시코 국경 인근의 임시 캠프에서 지내는 가족들에게 식사와 생필품을 전달해 왔습니다. 텐트나 길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잠을 청하는 부모와 자녀들이, 따뜻한 식사와 담요,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낯선 이들을 만나게 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친절의 행동은 단순한 자선 행위가 아니라, 임마누엘의 선포입니다. 이 행동들은 망명 신청자와 이주민들에게 이렇게 말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 정치적 분위기가 차가워지고 정책이 사람들을 밀어내려 할 때에도, 교회는 구호위원회와 관련 사역들을 통해 낯선 이들을 환영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도와준 망명 신청 사건 하나하나, 식사와 미소를 건네받는 아이 한 명 한 명, 지친 영혼에 귀 기울여 주는 모든 순간마다, 난민이셨던 아기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분은 우리가 낯선 이를 영접할 때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국경 너머에서도 구호위원회는 고통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2023년 초, 규모 7.8의 강진이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뒤흔들었을 때,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백만 명이 집을 잃은 슬픔과 상실 속에 남겨졌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매서운 겨울 추위 속에서 무너진 집터를 뒤로하고 텐트 안에 몸을 웅크리고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같은 연합감리교인들의 지원을 통해 구호위원회는 현지

특별선교주일

설교 자료



연합감리교구호주일

단체들과 협력하여 구호와 희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한 큰 피해 도시의 지역 센터는 텐트와 담요, 식량, 의료 지원을 나누는 허브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상징적인 일 가운데 하나는, 구호위원회가 텐트촌에 사는 가정들에 약 4,000개의 태양광 손전등을 제공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덕분에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화재 위험을 감수하며 불을 피우지 않고도 빛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손전등으로 휴대전화를 충전하여,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고립의 어둠 속에 빛과 연결이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빛에 대한 강력한 상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구호위원회는 트라우마를 겪은 생존자들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에도 재정을 보탰습니다. 삶을 재건한다는 것은 집을 다시 세우는 일만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해, 연합감리교회의 가족들은 지진 피해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실과 아픔 가운데 함께하시며, 우리가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홍수 피해를 본 노스캐롤라이나에서부터 멕시코의 이주민 캠프, 시리아의 잔해 속에 이르기까지, 위기의 모든 현장에서 구호위원회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통해 현장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예"에 동참하기:
임마누엘 살아내기

수태고지 이야기는, 깨어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거리를 두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 이야기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아들을 세상에 품고 나아갈 사람으로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초대받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여전히 상처 입은 세상을 만지고 치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헌금, 그리고 직접 가거나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호위원회를 지원할 때마다, 우리는 마리아의 고백인 *"보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고픈 이들이 먹을 것을 얻고, 집 없는 이들이 거처를 얻으며, 떠돌이 된 이들이 환영받고, 상한 이들이 온전하게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예"*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연합감리교구호주일은 단순한 연례행사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날은 우리가 일 년 내내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특별한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구호주일 특별헌금은 이러한 모든 사역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는 기반이 됩니다. 구호위원회의 한 망명 전문 변호사가 말했듯이, 취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느리고 어려운 일이지만, 교회의 지원은 *"도움이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희망과 지지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물을 통해, 우리는 모든 희망의 이야기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홍수 이후에도 노스캐롤라이나의 어떤 가정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돕는 일, 난민 가정이 법적인 보호와 환대를 경험하도록 돕는 일, 지진 생존자가 밤중에 다시 빛을 보게 되는 그 순간들 속에 우리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대담한 *"예"*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했고, 예수님의 임재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예"* 또한 그리스도의 임재를 다른 이들의 삶 속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분열, 절망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구호위원회는 교회가 *"주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응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빛나는 예입니다.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난 자비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시는 모습입니다.

이사야의 예언, 마리아의 부르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돌아보며, 동시에 우리의 응답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절망의 자리로 희망을 들고 들어갈, 기꺼이 순종할 종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번 구호주일이 희망을 몸소 살아내겠다는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다지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공동의 노력으로, 위기의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이들이 새로운 희망의 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고 물을 때, 구호위원회를 향한 우리의 지원과 행동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구호위원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약속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그 거룩한 사랑의 사역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별선교주일

설교 자료



연합감리교구호주일

결단의 시간

이 내용을 헌금 전 메시지의 안내문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감사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헌금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는 순간입니다. 또한 서로에게, 우리의 관대함이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낸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줄 기회입니다. 이 부분을 "결단의 시간(Impact Moment)"으로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헌금을 드리기에 앞서, 잠시 결단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대함을 통해 어떻게 세상에 희망과 치유와 사랑을 전달하시는지 함께 지켜보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이 오래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리임을 다시 기억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 가운데 품고 나아가는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물은 단지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홍수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정들의 손에 희망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추운 밤을 밖에서 보내야 할지도 모를 아이들의 주변을 따뜻함과 쉼터로 감싸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제로 손전등과 음식과 돌봄을 통해, 사람들이 가장 힘든 밤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헌금이 가진 힘입니다. 혼자 드리는 한 번의 헌금은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할 때, 우리의 "예"는 배가됩니다. 오늘 우리는 구호위원회의 사역을 강화하기 위해 헌금합니다. 구호위원회를 통해 우리의 헌금은 국경과 재난의 경계를 넘어, 낯선 이웃과 가까운 이웃 모두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잊힌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우리도 함께합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모든 것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가 오늘도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존재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헌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마리아의 이 고백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예", 희망에 대한 "예", 그리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사랑에 대한 "예"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 속 사역에 동참하며, 함께 영향력을 만들어 가는 하나의 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작성자: 네이튼 알레리지 목사, 서노스캐롤라이나연회 장로 목사

영향력을 위한 연합: 우리의 관대함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를 위한 희망, 구호, 그리고 지속적인 회복을 가능하게 합니다.